

# 논리연구와 논리교육

이초식 (고려대)

## 0. 들어가는 말

우리가 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구 열강들과 일본이 힘을 바탕으로 개항을 요구해 오던 19세기말부터로 잡아 볼 수 있다. 이 땅의 선구자들은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속히 배워야 하겠다는 절박감을 갖게 됨에 따라 그에 기초가 되는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에도 관심을 집중할 것이니 말이다. 1930년이 되면 우리 나라에서도 최초로 조선어로 된 논리학개론서가 발간된다.<sup>1)</sup> 그러나 논리교육과 논리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해방 후부터라고 할 것이다. 남한의 경우 지난 반세기동안 논리교육과 논리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sup>2)</sup> 논리적 사고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을 도입하게되는 60년대와 70년대의 기간에 새롭게 강조되었고 80년대 이후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별히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교육부의 교육 과정 전반에서도 논리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강조는 교육 과정에서 문자로만 제시되는 명목상의 것이었을 뿐이고 그것이 교재들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받게 된다. 80년대 말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자유선택과목으로 논리 교과가 정식으로 배정되어 낮은 감이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논리학 과목을 실제로 선택하는 학교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 실효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시대적 요구 때문에 논리의 필요성을 외면적으로는 강조하

---

1) 韓稚振(1930), 참조.

2) 북한의 경우 형식 논리학은 변증법 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연구되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2 논리연구 4집

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논리교육을 등한히 한 셈이다. 우리의 오래된 신비주의적 전통에서는 공공연히 논리연구를 천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논리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지배적 이었다. 논리교육은 말꼬투리만 잡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만들거나 말만 앞세우는 영악한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혹평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그럴 사하게 말로만 꾸며대는 궤변논자를 만드는 것이 논리교육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논리에 관해 이처럼 극단의 부정적 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 합리주의적인 성향의 지성인들은 형식논리를 조소하는 어법을 사용하기 일쑤다.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대범한 거동이며 논리를 무시하고 초월해야 높은 경지에 이르기나 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 우리의 관습에서도 논리적 계산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단면이 발견된다. 가령, 남에게서 돈을 받을 때 세어보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을 믿지 못해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돈을 세지 않고 받는 것이 예의로 되었던 관습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불신과 무례로 간주되거나 소인배의 짓으로 경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논리에 대한 갈구와 배경이 엇갈리는 지적 분위기 속에서 논리연구와 논리교육의 상호관계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학계가 후학들에게 논리교육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견에는 오래 전부터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논리교육이 만족할 만 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를 꼽아 볼 수 있겠으나 우리 나라의 논리학계나 철학계가 논리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크다. 논리교육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논리교육을 내실 있게 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논리교육이 각급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문외적 환경의 특별한 힘도 작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현실의 역학관계를 제쳐놓기로 한다. 필자는 대학에서 1954년에 논리학 개론을 배운 이래로 여러 가지 논리 공부도 해보고 논리학 강의도 담당해오면서 느끼게 되었던 문제들을 주로 회고해 가면서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 1. 논리의 연구와 교육은 경험적 방법을 요구한다.

논리 연구와 논리 교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논리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해야하는 내용인 논리의 연구가 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논리 연구의 결과가 세상에 잘 전파되려면 논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자의 연구 목표나 내용 및 방법이 서로 모두 일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논리학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면 논리교육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논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고등학교 이전의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논리는 일상적인 초급 논리에 해당하므로 깊은 논리 연구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논리교과 교육의 전문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생각되며 상식의 논리라고 해서 상식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일상생활의 논리는 유연성 있는 상식에 얽혀진 논리이므로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3)</sup>

우선 논리학의 연구 영역부터 생각해 보자. 논리학은 사고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심리학에서처럼 실험이나 관찰 등의 경험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형식이나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논리학에서는 선형적 (a priori)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논리학의 세계도 경험적 방법에 의해 탐구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경험주의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sup>4)</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논리학 개론서들에서는 논리학으로부터 심리학을 배제하는 반 심리

3) 오늘날 컴퓨터는 매우 복잡한 수학문제나 형식 논리의 문제는 잘 풀면서도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된다. 상식을 논리적으로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컴퓨터 과학에서 자주 쓰이는 Non-Monotonic Reasoning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다. Lukaszewicz(1990) 참조. 컴퓨터 과학 전반의 논리적 기초에 관해서는 조지 블로스·리차드 제프리 지음 김영정·최훈·강진호 옮김 (1996)이 유익한 교재가 될 것이다.

4) William Kneale and Martha Kneale (1962), 371 -377 쪽 에서 J. S. Mill의 사상 참조.

#### 4 논리연구 4집

주의의 교설이 폭넓게 수궁되어 왔다. 플라톤주의자들에 의하면 논리학의 연구영역은 이데아의 세계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눈이 아닌 이성의 눈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데아의 실재론을 따르지 않고 추상적인 구조나 언어적 구문론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논리학은 선험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통념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그러면 논리연구는 심리학이나 신경생리학과 같은 경험과학과 무관한가? '이성의 눈'이라는 유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논리학의 기본 원리나 형식들이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되는 마음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마음에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이성의 눈으로 본다고 할 때 그 마음과 신체의 관계, 마음과 두뇌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논리학의 본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심신문제(mind-body problems)에 관여하게 된다.<sup>6)</sup> 그리고 두뇌없이 이성의 작용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두뇌과학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러나 두뇌에 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논리적 원리들을 밝힐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듯하다.

설령, 논리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고의 심리학적인 연구를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논리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논리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사고에 관한 발달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 등의 연구성과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후건 부정식(modus tollens)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육성을 학습목표로 삼는다고 하자. 그 형식은  $(p \rightarrow q) \wedge \sim q \vdash \sim p$ 으로 표현되므로, 이들 기호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기호들의 규정된 의미만을 파악하면 전제들이 참인 경우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됨을 진리

5) 해방 후 오랜 동안 논리학 개론서의 전형이 되어온 박종홍(1948) 참조. 그리고 경험적 방법과 구별되는 현상학적 방법에 관해서는 보헨스키 著 李初植 譯 (1964) 52-60 쪽 참조.

6) Richard Mattessich(1978), 58-60쪽(3.21 Relation to the Mind-Body Problem) 참조

표 등에 의해 밝힐 수 있다. 이 작업에는 경험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현재 추론하고 있는 성향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내용들을 가진 구체적인 추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각종 추리 내용에서부터 후건 부정식을 뽑아내는 능력이나 그에 알맞은 사례들을 제시하는 능력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사례들에 따라 그 추출능력이나 사례제시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장과정에 따른 차이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후건 부정식을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그와 흡사한 것들과 비교해야 할 것이므로 전건 부정의 오류나 타당한 다른 추리형식 등과의 관계도 알아야 할 것이다. 논리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각종 경험적인 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논리 교육에서 특히 주목하는 상식 논리의 한가지 사례를 보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논리교육에 긴요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섯 살 된 어린이가 외가에서 보내던 어느 여름에 있었던 다음의 일화가 흥미 있게 여겨진다. “손자가 외할머니가 콩을 까고 계신 부엌에 들어와 함께 콩을 까겠다고 조른다. 할머니는 일에 방해되므로 손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는 부엌에서 콩 까는 일은 하지 않는단다. 어서 밖에 나가 놀거라.’ 이 말을 들은 손자는 별로 때도 쓰지 않고 곧 바로 마당에 나가 놀았다. 얼마후 옆집의 영자 아버지라는 분이 이 집에 들렀다가 노인이 콩을 까는 것을 보고 도와드리기 위해 함께 콩을 까게 되었다. 그 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손자가 들어와 할머니를 향해 ‘영자 아버지, 남자 야 아니 야?’ 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아니,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영자 아버지가 남자인줄도 몰라,’하고 말씀하시니, 손자는 ‘영자 아버지, 남자지. 남자 맞지’하며 재확인하더니 ‘그럼 나도 여기서 콩을 깔거야’하는 것이었다.”

이 일화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스쳐 지날 수도 있으나 평범한 어린이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확인되는 추리능력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어린이가 ‘영자 아버지, 남자 야 아니 야?’ 라는 물음을 제기하게된 사고과정은 예리한 비판적 사고

로 풀이된다. ‘남자는 부엌에서 콩 까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고 손자는 부엌에서 나갔다고 하겠다. 그런데 남자인 영자 아버지가 부엌에서 콩을 까는 것을 보고 할머니의 말씀이 모순된다고 추리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그렇게 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어린이의 추리구조는 바로 후건 부정식을 활용한 것이다. 즉, ‘할머니 말씀이 옳다면 부엌에서 콩을 까는 남자는 없다. 그런데 부엌에서 콩을 까는 남자가 있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말씀은 옳지 않다.’ 이 어린이의 실제 추리과정은 이런 후건 부정식을 규범 논리(deontic logic)<sup>7)</sup>나 결단 논리(decision logic)<sup>8)</sup> 등과 연결하여야만 보다 근접하게 풀이될는지 모른다.

물론, 여섯 살 된 어린이가 이런 논리들을 모두 배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추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적으로도 고등 논리를 구사한다. 그리하여 비 형식적인 자연논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형식 논리학을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sup>9)</sup> 그러나 그들은 한 측면에만 치중한 것 같다. 바로 위와 같은 일화를 듣고 그것이 후건 부정식이나 그 밖에 논리들과 연결시키려면 논리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 연관관계를 모르고 자연적 추리만 하게 되면 추리구조가 복잡하여 오류에 빠질 경우 어느 단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추리가 잘못되었을 때 단계를 밟아 수정하고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중층적으로 복잡해진 중대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판단의 실수가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욱 치밀하고 폭넓은 비판과 재구성의 논리교육이 요망된다. 요컨대,

7) 이초식, 피세진(1980) 「가치, 규범, 의사결정의 논리연구」, 철학 제14집, 1980 참조.

8) 결단 논리 전반에 관해서는 리차드 제프리 지음 이좌용 옮김(1998), 참조

9) 특히 일상언어학파의 영향을 받은 교육학자들 중에서 이런 경향이 자주 나타나지만 필자가 1974년 옥스퍼드대학을 방문했을 때 일상언어학파의 교과과정 속에서 많은 형식논리 과목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전개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자연논리만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인간의 상식적인 자연논리를 면밀히 검사하고 추리의 사실을 의식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긴요하다. 앞의 일화에서 어린이가 할머니의 말씀을 일단 받아드리는 사고에 주목하자.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처럼 로마의 법대로 해야한다'고 하듯이, 기존의 관습이나 상식적인 정보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수용하여 기본전제로 삼고 추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인지심리학에서 스키마와 같은 것을 상정하고 그에 의거한 초기화추리(default reasoning)를 하여가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어린이들이 사회관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고 풀이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다. 일화의 어린이처럼 어떤 주장이 주어졌을 때 그 주장에 대립하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추리의 전제로 삼는다. 우리는 아무런 전제도 없다면 어떤 유형의 추리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추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전제로 삼아야 하는데 관습이나 상식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전제의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실제로 추리하는 바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논리를 확립하고자하는 논리연구의 선결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실제적 추리를 보완 개선하려는 논리교육에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생활에 필요한 논리의 연구나 논리교육의 전문적인 연구에는 모두 경험적인 방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 2. 논리의 연구와 교육에는 배움에의 의지가 일차적이다.

논리연구와 논리교육은 모두가 논리의 세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정열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피어스(C. S. Peirce)의 용어를 빌리면 배움에의 의지 (the Will to Learn)가 요구된다.<sup>11)</sup> 논리 연구는 냉철한 이

10) Witold Lukaszewicz(1990), 77-110쪽 참조

11) Peirce, *Collected Papers*(1931-1958), 5.583 (1898), 'The Will to Learn'의 용어는 William James가 그 한해 전인 1897년에 The Will to Believe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수잔 하크는

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냉철한 사고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전개하는 힘이 없으면 연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논리에의 애정과 그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바로 그 힘을 제공한다. 이성애의 정열 없이 이성적 사고가 추진될 수 없으며 이성애의 정열 없이 이성적 삶이 성취될 수 없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생각들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내외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논리를 배우려는 의지가 논리 학습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가르치려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배움애의 의지는 논리 교사에게도 필수적이다. 물론, 논리는 일상생활이나 다른 학문들의 방법에 응용해야 하는 것들도 경시할 수 없다. 논리적인 인류 유산을 배우고 익혀 이를 현실세계에 뿐만 아니라 가능세계의 여러 분야에도 적용해 봄으로써 그 유산을 보다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논리교육의 큰 목적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그 어떤 과학도 논리를 필요로 하므로 논리교육은 도구교과로서의 역할도 매우 소중하다. 모든 과학들은 해당 분야의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데 체계화의 작업은 논리 없이 수행될 수 없다. 오늘날 논리의 응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도구교과로서의 논리교육이 각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 응용에서 야기되어 온 불행한 일들이나 위험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논리에의 내적 요구 없이 논리학의 체계를 가르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공허해 질 것이다. 논리에의 진정한 애정과 순수 의지가 결여된 논리교육은 위태롭다. 일차적 목적을 논리를 진정으로 알아보려는데 두지 않고, 가령, 돈벌이나 이득을 챙기는데 둔다면 논리의 참 맛을 알 수 없고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은 논리를 응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논리를 응용하는 벤처기업도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논리를 응용하여도 그 배움애의 의지를 추진력으로 삼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야 하고 돈을 벌어도 논리에 따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달리 말

---

Susan Haack(1996)에서 평가하고 있다.



하면 아무리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원칙에 어긋나는 돈벌이는 해서 안 된다는 뜻이다. 논리 연구자나 논리 교육자나 논리 학습자 그리고 논리 응용자 모두에게는 그 일차적인 관심과 가치를 논리적 일관성에 두고 이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정열과 의지를 키워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이것은 특히 학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공통의 윤리다.

수잔 하크(Susan Haack)는 이를 진정한 탐구(Genuine inquiry)의 규범으로 말하고 있다.<sup>12)</sup>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진리추구를 일차적인 것으로 삼지 않는 사이비 탐구(Pseudo-Inquiry)와 구별된다. 그녀는 사이비 탐구를 다시금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진정한 탐구의 모조론자(the sham reasoner)가 하는 것인데, 이들은 참으로 사물이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니고 있는 어떤 부동의 신념을 정당화하는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탐구의 위조론자(the fake reasoner)의 위장을 지칭하는데 이들 또한 참으로 사물이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제가 참임을 논하는데에만 골몰하고 그 명제 자체의 진리치(truth-value)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는 자들로 본다. “진정한 탐구자도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그릇된 증거나 논증으로 인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한 탐구자는 당치않은 증거나 어색한 논증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며 오염된 불투명성으로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지 않는다. 잘 못된 경우에도 남들의 진정한 노고를 방해하지 않는다”<sup>13)</sup>고 수잔 하크는 말하고 있다.

수잔 하크의 진리치 개념을 현실세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능세계의 체계들과의 관계에도 확장한다면 진정한 탐구와 사이비 탐구의 구분은 논리 연구와 교육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오늘날 특히 우리의 학계는 연구 업적 평가의 강요나 연구과제의 취득 문제로 인해 논리 연구가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의 자발성보다는 타의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물론 연구에도 자극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긴

12) Susan Haack(1996) 참조

13) Susan Haack(1996), 300쪽

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오늘날 경쟁일변도 사회의 외압이 너무나 강하면 배움에의 의지의 알맹이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창의력이 말살되어 고작해야 규격화된 고정작품만을 생산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모조론자나 위조론자로 전락시킨다. 오늘날 논리 교육에서는 특히 위조론자의 사이버 탐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입학시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리 교육이 연관된다고 하여 논리 교육에의 요구가 외형적으로 가열되는 듯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배움에의 의지와 결부되지 못하면 그런 위험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sup>14)</sup>

### 3. 정보화 시대의 정보 오염은 환경 오염 못지 않다.

어떤 연구도 연구자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과 완전히 떠나서 이루어 질 수 없다. 논리 연구도 그 예외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의 정보화 시대는 논리의 연구와 교육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시대에도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도 사냥감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었다. 산업화의 경쟁사회나 군사적 투쟁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보다 더 역동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보관과 교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이와 아울러 자유 경제의 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정보가 새로운 상품

14) 어린이 철학교육이나 논리교육의 책들이 한때 베스트셀러 수준에 육박하기도 하고 각 중 사설 학원들이 급 성장하는 것을 사이버 탐구의 전형으로 보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그런 우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논리에 대한 못처럼의 일반 대중의 열의를 살릴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철학계와 논리학계가 할 일은 그 열의를 진정한 탐구으로 돌리는 방향 전환에 치중하는 것으로 본다.

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보의 수집, 처리, 보관, 재생산, 유통 등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게 된 시대라는 의미로 정보화시대를 이해하게 될 때 논리의 역할이 막중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논리는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여 기존의 지식 체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필연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바들을 연역하고 기존의 정보와의 일관성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추리(ampliative inference)를 조심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체계를 때로는 수정 보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진 정보를 폐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존 체계자체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논리는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에도 관여한다.<sup>15)</sup>

하지만 논리는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는 보다 원초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의 문제를 결정하는데도 관여해야 한다.<sup>16)</sup> 정보의 수집자체가 선별적인 작업이므로 그 선별 과정에서부터 논리는 제외될 수 없다. 가능한 수집대상들 중에서 실제로 수집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 등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논리가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그 어느 시대에서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보의 수집은 그 수집자의 관심과 가치 그리고 목적들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논리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관심을 바꾸고 가치를 개선하며 목표를 적절히 겨냥해야 할 것이다.<sup>17)</sup> 따라서 논리는 이미 설정된

15) 리처드 제프리 지음 이좌용 옮김(1998)은 정보와 행동을 연결하는 학문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16) 정보 수집의 논리는 전통적으로 인식론에서 깊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나 필자는 이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져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17) 관심을 철학의 중심개념으로 하는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논리를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만 이해하는 지적 풍토는 한 쪽만을 보고 다른 한 쪽은 볼 수 없도록 오염의 장막을 친 것에 불과하다. 무엇이 참된 관심이며 무엇이 위장된 관심인가? 무엇이 지속할 관심이고 무엇이 폐기할 관심인가? 무엇이 포괄적 관심이고 무엇이 부분적 관심인가? 이러한 자기 반성적 성찰은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없고 직관된 바들을 비교, 검토, 수정, 제어하는 논리적 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삶의 구조를 좌우하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오염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못지않게 심각하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은 정보 오염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보화 시대는 양질의 정보 뿐 아니라 악성의 정보도 삼시간에 세계화한다. 특히 경쟁이 심한 사회일 수록 위장 허위 과대 선전 등, 오판을 유도하는 악성 정보가 득세한다. 그런데 민주 사회는 사회가 담당했던 오염 정보의 정화작업을 대부분 개개인들에게 이관하고 있다. 오염정보의 여과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작업이 개개인들에게 위임되게 될 때 그 사회가 심각한 정보오염으로 인해 병들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정보의 여과 능력이란 논리적 사고능력에 비례하는데 논리적 사고능력을 육성하는 논리교육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막중한 정보 여과의 책무를 맡게 되었으니 판단이 잘못되고 결단이 빗나가기 쉽다.

단련사회에서는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의타적 이었던 것이 세계화의 열린사회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어렵다하여 자발적으로 의타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유혹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세파에 몸을 맡기고 환상적인 안일을 꿈꾸어 보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일은 골치 아프고 고된 길인데 비해, 동서양의 신비주의 교설들은 초월적인 지름길이 있다고 구미당기는 말로 마음의 위안을 주기

---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여길는지 몰라도, 본래적 관심의 정체성이 비 본래적 관심으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성립된다면 논리적 사고는 결코 부차적인 것으로만 보기 어려울 것이다.

도 한다. 때문에 어려운 논리 연구와 논리 교육은 기피되기 일 쑤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것들이 무수히 많으며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만병 통치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섬광과 같은 신비적 체험이 때로는 과학적 가설을 시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세계와의 논리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명제를 우리는 과학적 법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sup>18)</sup> 진리에의 지름길이 없지 않겠으나 밟아야 하는 논리적 사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큰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자기 기만이나 자기합정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돈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미끼에 걸려드는 것처럼, 학문과 교육의 세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단계를 무시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다하겠다.

실은, 일반 사회보다 이른바 지식인 상층 사회의 논리 기피증이 더욱 문제다.<sup>19)</sup> 일상 생활인들이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이 논리를 기피하게 되면, 상류의 물이 오염되는 것처럼, 논리 혐오의 파급 효과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가령, “대표적인 논리인 연역논리는 전제에 있던 것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니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형식논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내용이 빠져 있어 공허하여 현실에는 아무 쓸모도 없다”, “특히 기호논리는 엄격한 규칙들에 의해 기호들을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있다”는 등의 언명들을 생각해보자.

이와 흡사한 말들은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의 주장일 뿐만 아

18) 金俊燮의 공저(1985) 282쪽에서 김준섭이 지적되는 바를 필자는 다시금 음미하게 된다. “모든 과학은 물론이고, 철학과 종교까지도 합리성을 떠나서는 일반의 동의를 얻기 힘들게 된다. ... 철학과 종교가 각각의 특유한 사고 방식이 있다고 해도 배우고 전달하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또한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예술 등에 속하는 지식인들은 문과(文科)성향이므로 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취향이 다른데, 순수 논리학은 수학과 흡사하여 인문학의 지성인들이 논리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니라 어떤 측면에서 수궁이 간다. 하지만 그 언명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고 잘 못 받아드리면 위태롭다. 우선, 연역적으로 타당한 추리형식이 내용 보존적이므로 결론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인식의 새로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수학의 문제 풀이가 대체로 연역적임을 상기할 때, 문제가 제시될 때 몰랐던 많은 것을 문제풀이에서 새롭게 알게되는 것처럼, 연역추리는 실천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량의 정보를 갖고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연역 추리를 해내는 컴퓨터를 통해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입력되지 않은 내용의 새로움은 연역 추리의 작업에서 기대할 수 없다.<sup>20)</sup> 하지만 동일한 내용에서도 인식의 새로움은 행동을 새롭게 한다.

다음으로 연역적 추리형식이 현실적 내용과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무용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착각이다. 전제들의 내용이 참임을 입증하는 부담 때문에 결론의 내용이 참이라고 연역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연역적 추리형식은 비판의 도구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sup>21)</sup> 이미 지적한대로 정보화 시대는 대량의 불량 정보가 지구 전체를 홍수처럼 엄습하므로 보다 강력한 비판의 도구가 필요한데 연역적으로 타당한 추리형식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타당한 추리 형식에 있어서 전제들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그로부터 도출한 결론의 내용을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을 범한다.” 이 규범은 인류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규범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어떤 비판도 정당하게 성립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린이나 아래 사람이, 심지어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

20) 물론, 컴퓨터는 진리 보존적 연역추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 확장적인 귀납추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다. 이초식(1993) 165-174쪽 참조

21) 이초식,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형식논리의 역할」, 『철학교육연구』 제6권 제14호 1990)에서 필자는 이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런 모순을 지적해 온다면, 아무리 권위가 상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긍하고 복종해야 한다. 타당한 추리 형식으로 전개된 전제를 인정했으면 같은 맥락에서 도출된 결론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화 되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로 여겨진다. 연역논리는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변적인 현실적 내용들을 넘어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타당한 추리형식에 있어서 전제와 결론의 연결 관계는 칼이나 톱으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현재의 원자탄이나 앞으로 나올 어떤 첨단 폭발물로도 폭발시킬 수 없는 관계이다.<sup>22)</sup>

끝으로, 기호 논리적 사고는 공리나 정의 및 규칙들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그 가정들이 성립되는 논리의 한계 안에 구속된다고 한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 문지기를 빼 놓고는 공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엄격히 경기 행동을 구속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축구를 할 것인가 농구를 할 것인가는 자유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기를 할 것을 결단한다면 그 결단에 의해 따르는 규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추리에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전제 없는 추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전제들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들은 망 조직으로 얽혀있다. 우리가 복종하여야 하는 언어게임의 규칙들은 이와 같은 의미망 안에서만 이해된다.

우리가 논리적 모순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논리의 세계가 결정되어 언어게임의 의미 규칙이 마련된 연후의 일이다. 의미하는 바가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리적 모순을 논하는 것은 초점이 없는 말이다. 가령, ‘道는 道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자. 앞에 도와 뒤의 도가 같은 의미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나 그러나 대체로 이런 말이 제시되는 맥락은 그렇지 않다. 그 의미내용을 풀이하는 것을 보면 결국, ‘道1 은 道2 가 아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그것은 결코 논리적 모순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道는 道가 아니다’는

22) 이 표현은 과장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현실의 어떤 사례에 의해 서도 타당한 추리형식을 반증할 수 없음을 말하려고 했을 뿐이다.

논리적 모순이지만 이를 마땅히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이 끊이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특히 지식인 사회의 이런 발언들은 지식인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무모순성을 손상하니 말이다.<sup>23)</sup>

이와 비슷한 논지가 비합리주의의 교설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비합리주의가 합리주의나 논리주의에 대립된다고 해서 그 주장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제시되거나 반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힘은 합리적 이성의 힘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의지다’는 명제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비합리주의를 생각해 보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힘을 이해해야 한다.’는 명제와 그 기본 전제를 결부시키면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그 비합리주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합리주의는 비합리적인 의지를 기본 전제로 삼았으나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논리는 합리주의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비합리주의자들에게도 그들의 논지를 펴는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 4. 논리 연구와 교육의 신퇴 집단이 필요하다.

논리 교육에서 오류론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거나 이 이를 잘못 사용할 때 유발되는 오류론의 오류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의 하나가 존경감에 호소하는 논증(*Argumentum ad Verecundiam*)의 오류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나 성

23) 지난 세기초에 논의되던 집합론의 역설이나 의미론의 역설들을 접할 때 어떤 이는 혹시 모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는지 모르나, 실은 그와 정반대로 모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의 논의는 그를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수잔 하크 지음 김효명 옮김(1984), 175-197쪽에서는 이 역설 문제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논하고 있다.



현의 말과 저명한 저서를 인용하여 자기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물리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특별히 이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나 만일 그를 경제학 분야에도 권위가 있다고 하여 신용하는 것은 오류이다.”<sup>24)</sup> 대체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풀이되는 이 오류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Appeal to authority)라고도 한다. 특히 이 오류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시대에는 이 오류가 빈번히 적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정당하게 여기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데에도 한계는 있다. 서로 비슷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리할 때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교류되는 열린 사회에서는 같은 분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자주적인 사고 능력을 강조하는 철학에서는 권위의 배격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면 권위는 필요 없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교육계나 종교계, 의료계나 법조계, 정치계나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권위의 상실이 크게 문제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살려야 하는 권위이며 무엇이 버려야 하는 권위인가? 권위를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가? 등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다루면서 염두에 두게 된다.

권위의 문제는 논리 교육과 관련된 인식의 영역에서 새롭게 다룰 필요가 있게 된다.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인식의 타당근거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권위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의 주장일지라도 잘 못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명제가 참이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주장들을 자기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근거와 인식의 원천을 구별해야 할 것 같다. 즉, 권위는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나 인식의 원천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전문가의 주장들은 그 분야의 보다 참된 명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상정되므로 인식

24) 韓稚振(1930) 211-212쪽의 내용을 간추림.

의 원천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또는 학문적 연구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지식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식의 원천으로서의 권위를 문제삼는다. 믿을 만한 소식통이 무엇이며 어떤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인식활동의 선결과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이 수락한 인식 근거에 의해 낱낱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식 근거에 의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식의 정당성 문제가 야기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정당성을 문제삼지 않는 경우 일 지라고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철학자들은 인식 근거를 논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든 인식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만한 이유는 있어야 한다.

수집되는 대량의 정보를 모두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간접적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정보의 발원지에 대한 신뢰도, 즉, 권위를 미리 정하고 그것에 의해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치 일급 수, 이급 수 등의 구별로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듯이,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일급 질 정보, 이급 질 정보 등을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암암리에 또는 명시적으로 정보원천의 등급을 정하여 사용한다. 누구의 말이나 다 같은 비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이처럼 간접 평가를 채용하는 까닭은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필요한 지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행동에 필요한 지식들은 아무리 정확해도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권위에 의한 지식이 잘 못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용하며 때로는 달리 할 방도가 없으므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사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논리교육은 학생들의 정보 수집 원천에 대한 신뢰도 평가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가장 믿을 만한 인식의 원천을 구성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믿을 것이 드물어 많은 것을 직접 판단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믿을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해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결론적인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가 삶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양질의 적절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해야 한다는 따위의 위협적인 말로 국민을 재촉하는 지도자들이 신뢰성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파경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나 자신의 문제로 자성하게 된다.

논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 과대포장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특히 논리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논리만 배우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은 주기 쉽다. 내가 하는 논리 연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비록 논리 연구가 그것의 응용 분야를 언제나 지적하면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논리 연구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도 없을 것 같다. 순수한 논리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사회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가능하면 순수 논리의 연구가 사회가 요구하는 논리와 일치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논리를 연구 개발하고 논리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함으로써 논리를 생활화하는 풍토를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논리 연구와 논리 교육에도 신뢰집단이 형성될 경우 논리 연구는 강력한 사회적인 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논리 교육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우리의 논리학계와 논리 교육계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과 필자의 단상들을 모아 보았다. 우리 사회가 논리교육과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구의 과학기술이 동양제국에 유입되는 시기였으며 오늘날도 현실적인 요구는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논리적 사고력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을 하려는 것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다. 냉전이나 열전의 시대보다 세계화시대에서는 그 강조점이 강병보다 부국으로 옮겨진데 불과하다. 각 국은 정보화 경쟁시대에서 자국이 보다 우위를 점유하면서 살아 갈 수 있으려면 고차적 사고 능력으로서의 논리적인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그 경쟁에서 뒤떨어져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 없어 더욱 착잡해진다.

필자는 논리학계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경험과학적 연구가 논리 교육에는 필수적이며 논리 연구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실천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피어스의 배움에의 의지나 수잔 하크의 진정한 탐구의 정신을 일차적 규범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았다. 이것은 사회가 경쟁일변도로 학계를 몰아 치는 부국책(富國策)이 진정한 탐구 정신을 질식시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수잔 학의 논지에 동감이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좀더 시야를 넓혀 정보화시대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논리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나아가 논리 연구와 논리 교육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지적해 보았다. 오늘날 정보 오염은 환경 오염 못지 않게 심각하며 환경 오염도 정보 오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오염 정보들을 자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의 열린 사회나 민주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그 정보 오염의 피해는 막심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 교육이 시급하다. 그 추진을 위해서도 논리학과 논리교육의 믿을 만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신뢰집단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韓稚振(1930), 『論理學概論』, 哲學研究社, 京城.
- 朴鐘鴻(1948), 『一般論理學』, 증보판(1962), 박종홍전집 III, 민음사 (1998)
- 보헨스키 지음, 李初植 옮김(1964), 『現代의 思考方法』, 일신사.
- 수잔 하크 지음, 김효명 옮김(1984), 『論理哲學』, 종로서적.
- 金俊燮외(1985), 『논리연구』, 문학과 지성사.
- 이초식(1993), 『인공지능의 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지 블로스·리차드 제프리, 김영정·최훈·강진호 옮김(1996), 『계산가  
능성과 논리 -수리논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 리차드 제프리 지음, 이좌용 옮김(1998), 『결단의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  
판부.
- C. S. Peirce, *Collected Papers(1931-1958)*, ed. Charles Hartshorne,  
Paul Weiss, and Arthur Burk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
- William Kneale and Martha Kneale(1962), *The Development of  
Logic*, Clarendon Press, Oxford.
- Richard Mattessich(1978), *Instrumental Reasoning and Systems  
Methodology: An Epistemology of the Applied and Social  
Science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Dordrecht.
- Witold Lukaszewicz(1990), *Non-Monotonic Reasoning:  
Formalization of Commonsense Reasoning*, Ellis  
Horwood, New York.
- Susan Haack(1996), "Preposterism and Its Consequences", In:  
*Scientific Innovation,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ed.  
by Ellen Frankel Paul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